행복한 책 읽기

바버라 에런라이크 '노동의 배신' 〈부키刊〉

저임금 노동자, 워킹 푸어 생존기

워킹 푸어(working poor)란 일하는 빈곤층이라는 뜻이다. 직업이 있다고 다 잘 사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열심히 일을 하는데도 제대로 된 삶을 영위할 수 없다면 무엇인가가 잘못된 것이다.

'세계화'와 '자유화'라는 용어를 만들어낸 신자유주의는 공공복지 확대에 부정적이다. 신자유주의자들은 정부의 재정팽창은 근로의욕을 감퇴시켜 '복지병'을 야기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 결과 미국은 복지 개혁이라는 명목으로 약 400만 명의 여성을 시간당 6달러나 7달러를 받는 노동시장으로 내몰았다.

'비숙련 노동자들이 받는 임금만으로 실제 생활이 가능할까?'라고 의문을 품은 저자는 직접 저임금 노동 현장으로 뛰어들었다. 웨이트리스, 요양원 식이요법 보조원, 청소원, 마트 직원 등 여섯 가지 직종을 체험하면서 얻은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저임금 노동자들은 수입의 50% 이상을 방값으로 내면서도 아파트나 주택이 아닌 낡은 모텔 방에서 살았다. 그것도 여의치 않으면 모텔 방 한 칸을 두세 명이 함께 사용하기도 했다. 식생활은 영양은 없고 칼로리만 높은 패스트푸드로 끼니를 때워 비만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그리고 근무 중에 다쳐도 쉴 수가 없었다.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데, 일을 쉬면 다음 끼니를 걱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들이 열악한 삶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가장 큰 요인은 집세는 하루가 멀다고 올라가는데, 임금은 거의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고용주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임금 상승을 막고 있다. 저임금 노동자들이 임금에 대해서 불만을 표시하면 임금을 인상하는 대신에 공짜식사, 교통수단 보조, 자사 상품 구입 시 할인 혜택을 준다. 이는 부수적인 보상에 대한 혜택을 없애는 것은 쉽지만, 올린 임금을 내리는 것은 어렵기 때문이다.

저임금 노동자들은 임금을 더 많이 달라고 요구하거나 임금이 좀 더 많은 직장을 찾아보는 등 합리적인 일을 하기보다는 현재의 자리에서 참고 견디려고 한다. 이는 가난할수록 기동력이 떨어져 직장을 찾는 지리적 범위가 한정되어 있는데다가, 케이블 방송을 볼 수 있는 채널이나 컴퓨터 웹 사이트가 없어 조언을 구할 곳이 딱히 없기 때문이다. 또한 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금기시하는 문화도 한 몫 한다. 각자가 받는 보수에 대해서 침묵하기 때문에 서로 임금에 대한 정보를 얻기 힘든 것이다.

저자는 직접 경험한 것을 토대로 자본주의 민주국가에 속한 자유로운 노동자인 저임금 노동자들이 늘 경제적으로 합리적인 선택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면 그것은 자유롭지도 민주적이지도 않은 공간에서 일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우리나라에도 저임금을 받고 있는 비정규직원들이 많다. 선거가 끝난 지금 몇몇 대형마트에서는 비정규직원들을 정규직원으로 흡수하고 있다. 이런 일들이 단지 단기성 과시용이 아니기를 바래본다.

나정이
1998년 광주일보 신춘문예 소설 당선자

사람 냄새 나는 세상… 흥과 멋이 넘쳐난다

타악그룹 '얼쑤' 매월 마지막주 토요일 상설공연

함께 놀고 먹고 이야기 나누며 소통하는 삶 꿈꿔

타악그룹 '얼쑤'가 옛 대촌 동초등학교를 리모델링한 공간에서 매월 마지막 주 토요일 상설공연을 선보인다.

교정으로 들어서자 은은한 등나무 향기가 바람에 실려왔다. 등나무 아래 벤치에는 소박한 음식이 놓여있고, 옆 칠판에는 이런 글이 쓰여 있다. '김지은 사탕 한봉지, 남성동 막걸리 1박스 두부 2판, 류제운 노동력, 텃밭 형님 과자 세트, 천사 음료수 두병.'

지난 4월 마지막 주 토요일, 옛 대촌 동초등학교에 자리한 타악그룹 '얼쑤'의 공연장에는 흥과 멋이 넘쳐났다. 신명 난 타악기 리듬에 몸을 맡기며 공연을 감상한 관객들은 이후 먹을거리를 나누고 두부에 막걸리 한잔 씩 건네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얼쑤는 지난 2002년 폐교가 된 초등학교를 리모델링해 그해 10월부터 이곳에서 다양한 강습과 체험학습, 공연을 진행하고 있다.

얼쑤의 대표작인 '흥', '질주' 등을 선보인 이날 공연은 얼쑤에게 특별했다. 1992년 창단 후부터 항상 마음에 품었던 작은 꿈이 현실이 된 첫번째 공연이었기 때문이다. 얼쑤는 이날 공연을 시작으로 매월 마지막 주 토요일 상설공연을 진행한다.

입장료는 따로 없다. 두부 한모, 막걸리 한병, 소소한 먹을거리를 가지고 와서 나누면 된다. 따로 나눌거리를 챙겨오지 못했다면 '굿전함'에 작은 정성을 더하면된다. 모아진 돈은 다음 공연 때 먹을거리를 구입하는 용도로 사용된다.

상설공연은 다양한 레퍼토리로 진행할 계획이다. 얼쑤의 신작을 가장 먼저 볼 수 있는 장이 될지도 모른다. 앞으로 얼쑤 뿐 아니라, 타 단체들이 공연도 추진할 계획이다.

100여명이 들어가는 소규모 공연장에서 진행된 이날 공연은 다이나믹했다. 관객과 무대는 밀착돼 있고, 타악 연주자들의 기운은 날 것 그대로 관객에게 전해졌다. 함께 어우러지는 무대, 한바탕 '난장'이었다.

공연에 앞서 마이크를 잡은 얼쑤 김양균 대표는 "이번 상설공연은 꼭 하고 싶었던 일"이라고 했다. 함께 놀고, 함께 먹고, 함께 이야기 나누며 소통하는 삶을 꿈꾸는 얼쑤에게 '상설공연'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매개체다.

느티나무와 지난해 심은 잔디가 푸른빛을 더하면 내년부터는 야외에 간이무대를 만들고 좀 더 큰 판을 벌여볼 계획이다.

4000여평의 폐교는 타악기, 도예 등을 배울 수 있는 강습실과 체험학습실, 전시실, 차를 마실수 있는 사랑방 등으로 아기자기하게 꾸며져 있다. 또 바로 옆에는 빛고을공예창작촌과 남구청이 운영하는 힐링가든, 400세대가 경작하는 시민텃밭도 있어 주변 여건도 좋은 편이다.

"저희가 진행하는 상설공연은 그냥 다른 단체처럼 '정기적으로 공연한다'는 의미하고는 좀 달라요. 요즘 같은 시절엔 사람들이 만나 정을 나누고, 소통하는 공간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가 그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공연도 보고, 음식도 나누고, 그렇게 함께하는 세상을 만들고 싶어요."

김양균 대표는 문화로 하나되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꿈꾸고 있었다.

얼쑤는 또 300여명의 후원회원들과 함께 예술인 자녀와 예술가를 꿈꾸는 청소년들을 돕기 위한 문화재단 설립도 차곡차곡 준비하고 있다.

매달 15차례 이상 공연을 진행하는 얼쑤는 올해도 바삐 움직인다. 3년 연속 광주문화재단이 공모한 '페스티벌 오!광주'에 당선돼 타악 퍼포먼스 '인수화풍'(人水火風·6월15~16일)을 무대에 올리며 8월에는 '굿+판' 행사를 진행한다. 문의 062-676-3844.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봄날, 가곡의 매력에 흠뻑

강양은 독창회, 내일 빛고을아트스페이스

부드럽고 온화한 음색이 들려주는 가곡의 매력에 빠질 수 있는 무대가 열린다.

광주문화재단은 9일 오후 7시30분 빛고을아트스페이스 5층 소공연장에서 메조 소프라노 강양은 독창회 '여인의 생애'를 선보인다.

강양은은 '칼멘', '아이다' 등 오페라 10여 편의 주역으로 활동했다. 메시아, 9번 합창 교향곡, 한국 가곡 모음, 여인의 생애 등 음반을 제작하고 미국, 이태리, 독일 및 국내에서 수차례 독창회를 개최하는 등 활발하게 활동 중이며 현재 호남신학대 음악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공연은 로베르트 슈만의 대표적인 연가곡 '여인의 사랑과 생애(전8곡)'와 '사랑의 기쁨' 등 이태리 가곡, '내 맘에 강물' '아무도 모르라고' 등 한국 가곡, '나는 우울하네' '뻐꾸기' 등 러시아 가곡을 차례대로 들려줄 예정이다. 피아니스트 이상록씨가 해설과 반주를 맡는다. 전석 초대. 문의 062-670-7492.

/이보람기자 boram@kwangju.co.kr

광주문화재단, 13일부터 '5월 광주' 체험

5·18 연극을 보고 주먹밥을 먹고 조화를 만들어보는 '5월 광주' 체험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광주문화재단은 5·18민주화운동 33주년을 맞아 지역 중·고생들에게 올바른 역사 인식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오는 13일부터 5회에 걸쳐 문화체험프로그램 '오월광주'를 진행한다.

'오월광주'는 광주문화재단이 진행하는 기획문화이용권 사업의 일환인 '광주문화둘레길' 9개 프로그램 중 하나. 5·18민주화운동 자료영상 시청, 연극 '마중'관람, 광주대동정신을 상징하는 주먹밥 먹기, 희생자에 전하는 종이 조화 만들기, 5·18민주묘지 참배 및 헌화 순으로 4시간에 걸쳐 진행된다.

13일부터 25일까지 5회 진행하고 호응도에 따라 연중 사업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참여를 원하는 학교 및 청소년 관련 시설은 10일까지 30~40명 규모의 체험단을 구성해 신청하면 된다. 참가비용은 무료 선착순 5개팀을 선정한다. 문의 062-670-7916.

/이보람기자 boram@kwangju.co.kr

'로맨틱 러브스토리'

내일 '소울 앙상블' 정기연주회

실내악 연주단체 '소울 앙상블(Soul Ensemble)'이 9일 오후 7시30분 유·스퀘어문화관 금호아트홀에서 정기연주회를 갖는다.

소울 앙상블은 한국예술종합학교를 거쳐 독일 라이프치히에서 수학한 광주 출신 첼리스트 김재준씨를 리더로 이재완(피아노), 윤성근(바이올린), 이기헌(비올라)씨가 함께 호흡을 맞추는 연주 그룹이다.

'로맨틱 러브스토리'란 주제로 열리는 연주회 레퍼토리는 슈베르트의 '아다지오와 론도 콘세르탄테', 슈만의 '피아노 콰르텟 작품 47', 브람스의 '피아노 콰르텟 3번 작품 60'이다.

이번 연주회는 오는 11일 오후 3시 서울 영상 아트홀에서도 열린다. 티켓 가격 전석 2만원. 문의 010-4301-1929.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